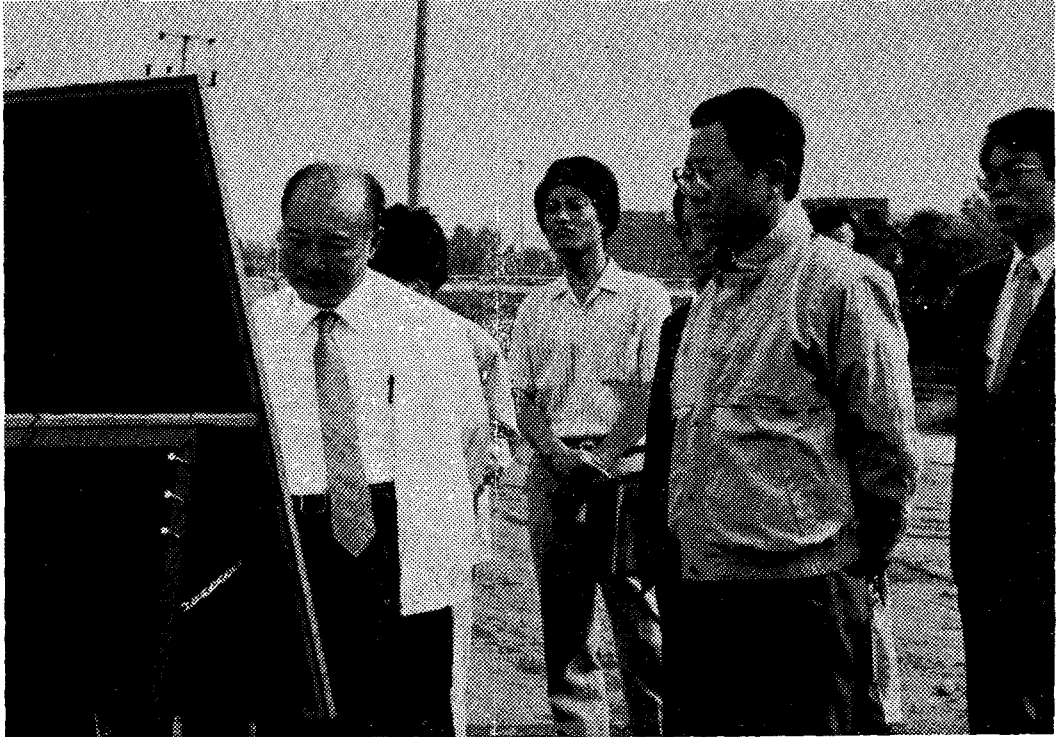


“
鄭寅用부총리 난지도, 안양천 시찰
”



안양천 환경보전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鄭寅用부총리(左)와 朴判濟환경청장(右).

鄭寅用부총리는 7월 3일 朴判濟환경청장과 함께 환경오염현장을 둘러보았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안양천(철산 유수지)과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을 둘러본 鄭부총리는 용인의 경안천 일대에도 둘러 環境保到에 만전을 기할 것을 관계관에게 지시했다.

이 자리에는 韓壽生 서울환경지청장과 環境庁 李方焄 수질보전국장이 수행했다.